

大學教材 問題解答集의

複寫出版은 禁止되어야

金 鶴 守 (釜山大助教授)

I

대학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외국 교재들의 연습문제 풀이집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재가 출판되면 저자들은 매장(章)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풀이집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책을 채택한 교수의 요청이 있으면 풀이집을 보내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교수들이 이 풀이집을 요구하는것은 학생들에게 장끝에 있는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고, 제출된 과제를 채점하는데 참고하기 위함이다. 많은 강의량을 처리해야하는 교수들이 채점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풀이집을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이 풀이집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II

풀이집을 봄으로써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어서 교육효과를 높인다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풀이집의 출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수들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풀이집의 출판은 단연코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교수가 더 많다고 본다.

첫째, 과제는 학생 평가의 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제는 학생 각자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우선 부과된다. 이런 전제하에서만 과제는 학생에 대한 평가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퍼센트로 성적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런데 풀이집에 의존한 풀이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교수들이 이런 풀이집이 시중에 있는것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된다. 이럴 때의 과제제시는 년센스가 되고 만다. 실로 식별력 없는 몇 출판업자가 대학의 교육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풀이집에 쉽게 의존하면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을 때, 그래서 주어진 과제를

속고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문제의 핵심에 이를 수 있고, 이런 때야말로 학생들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쉽게 풀이집에 의존하면 큰 성취에 이를 수 없게 된다.

연구(research)란 결국 과제(Home work)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어느 연구가의 이야기가 있다.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연구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숙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차원의 것이라는 뜻이다. 문제의 뜻조차 모르던 것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다른 참고서를 읽음으로써 비로소 핵심에 가까워지고 진수를 깨닫게 된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한 기술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은 미래의 독자적 연구가로서의 자질을 쌓아가는 것이다. 풀이집은 교수들로부터 이런 중요한 교육기술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

세째, 풀이집은 교수들의 강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매장(章)의 강의마다 책에 없는 문제를 제시하면 될게 아니냐는 문외한들로부터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주문이다. 특히 대학원 수준 같으면 더더욱 어려운 주문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잘 쓰여진 교재에는 적절한 연습문제가 잘 배열되어 있다. 저자들은 이 문제 제작과 그 배열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강의 교수가 다시 새로운 문제를 제작하여 추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면 한 학기 동안 문제만 제작하다 끝난다고 해도 심한 말은 아닐 것이다. 특히 대학원 수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연습문제 제작까지도 못하겠다는 식의 이런 강변에 새삼 놀랄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학 교원의 일차적 기능이 강의보다 연구에 있고 교수들의 능력과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네째, 풀이집의 출판은 국위마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공계 교제가 미국적인데 미국에서 강의 교수에게만 보내온 풀이집이 이곳에서 마구 복사 출판되는 것은 국제간의 신의에도 큰 문제가 있게 된다. 원래 이런 풀이집의 성행은 처음 대만에서 출발한 모양으로, 풀이집을 가방에 넣어 미국으로 유학의서 연습문제를 잘도 척척 풀어내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 문제는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대학 당국들이 대만의 이런 풍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대만에서 유래한 이런 나쁜 버릇이 우리에게도 생기고 있어서 우리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필자가 어떤 교제의 풀이집을 저자에게 요구했더니 쓰다달다 해답이 없었다. 이 교제의 초판은 현재 세계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초판의 문제집이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다. 행여 그 교수가 수정판의 문제를 보내주면 그것까지 복사될까 보아 그저 무응답을 한것이 아닌 가하여 염려된다. (필자가 채택한 교제는 수정판이었다)

III

이상은 풀이집의 출판이 가져 올 가능한 몇가지 상식적인 문제점들을 열거한 것이다.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것이 문제는 문제로구나 하는 이른바 문제 의식에는 대다수가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전문학술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단일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의 전일치만 이루어 진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지 모른다. 좁은 출판시장이니까, 업자들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